

2024년 8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박세진	8/4	[뉴스리뷰]'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해킹 아냐" [출발600]국방장관, 15년 만에 일본 방문..."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임윤주	8/11	[뉴스리뷰]"튜브에 290배 넘는 유해물질"...물놀이에도 '알리 주 의보' [토요와이드]"정년 연장" vs "재고용"...고령층 고용문제 해법은	
안지연	8/18	[라이브투데이]아고다·트립닷컴 불만 상담 최다...알리·테무보다 많아 [뉴스센터]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방역수칙 준수해야"	
김홍태	8/25	[일요와이드]전기차 공포, 주민 갈등으로...지상 주차도 난항 [뉴스오늘]엄마따라 베트남 간 다문화 자녀...고국서도 정착 '난항'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8월 마지막출연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8/4(일)	박세진	<p>연합뉴스TV는 지난달 30일, 국군 정보사령부 해외 공작 부서 소속 군무원 A 씨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군사 기밀 가운데 대북 작전 코드명을 비롯한 블랙 요원들의 실명과 위장 직업, 위장 업체명 등 기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군 검찰이 군사 기밀 누설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에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분석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이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먼저 보도에 따르면 군이 이번 기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지난 6월로 알려졌는데, 최초 인지 시점부터 두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자에게 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를 살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은 우리 요원들의 생명이 걸린 만큼 촌각을 다투는 조치가 필수적이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수사가 지연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 화면 구성에서도 개선될</p>	<p>군이 기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보도가 나오기 한 달 전쯤입니다. 군 당국은 인지 직후부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첫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p> <p>군 당국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는지, 지연된 면이 없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p> <p>또 영상 편집 시 정보사령부에 비중을 뒤야 한다는 점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향후 관련 리포트 제작 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p>

		<p>점이 있어 보입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핵심 부대는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등장하는 군 관련 화면은 국방부 중앙군사법원,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정보사령부가 사안의 핵심 부대인 만큼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되었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2024 8/11(일)	임윤주	<p>다음은 고령층 고용 문제에 관해 보도한 <토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5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고령층 고용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계속고용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 노동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퇴직 연령을 늦춰 소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이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년 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타협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령층 고용은 결국 노후소득과 역인 문제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연계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p>	<p>조사기관은 통계청이었습니 다만 구체적 수치를 CG로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p> <p>좀 더 상세하면서도 친절 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하겠습니다. 고령층 노동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할 예정입니다.</p>

		<p>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회문제를 다룬 보도였는데요. 중요성 대비 보도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아 아쉬웠습니다. 보도 초반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나, 조사명 등 명확한 출처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니다. 보도 중반쯤 언급된 계속고용위원회 관련해서는, 노사 간 엇갈린 의견만 짧게 언급되었는데요.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상반된 두 의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제목과 달리 해법을 다루기보다는 화두를 던진 것에만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터뷰도 짧게 인용되었는데요, 중요한 사회문제 만큼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p>	
2024 8/18(일)	안지연	<p>지난 9일 라이브 투데이의 보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보도는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트립닷컴의 불만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가운데 아고다와 트립닷컴 사건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아고다 상담은 610건, 트립닷컴은 327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 222건, 테무 92건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고, 아고다 등 여행 플랫폼 이용자들은 주로 예약 취소와 환불, 수수료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과 그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여행 플랫폼</p>	<p>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고다와 트립닷컴 등 여행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 상담을 분석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니다. 최근 들어 여행 플랫폼을 통해 예약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관심사라 판단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소비자들의 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플랫폼과 이용자에 대한 개별 취재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과 불만 상담 건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동반됐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리포트 제작 시 정부 부처 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나 이용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p>

		<p>을 통해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만 의존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이나 플랫폼 측의 대응 방안과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등을 보도에 포함했다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단순히 중국 쇼핑 플랫폼과 여행 플랫폼 불만 상담 건수를 비교했는데요, 국가별 소비자 상담 건수를 덧붙여 수치를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면 국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다 깊이있는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p>	<p>습니다.</p>
2024 8/25(일)	김홍태	<p>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지난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고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16일 뉴스리뷰에서는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60대 부부의 비극적 사고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고의 심각성과 법적 쟁점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단독으로 보도한 점은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다만 위 보도 외 전동 킥보드 이용시 어떤 위험한 점이 있는지와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한 번 더 집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킥보드 사용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동 킥</p>	<p>관련 보도는 저희 연합뉴스TV 단독 기사로 첫 보도 이후 사고 내용과 문제점, 킥보드의 위험성 등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사고 이후 논란이 됐던 해당 사고지점을 법상 도로로 경찰이 결론짓고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 고취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킥보드 사고는 여전합니다. 이후에도 의견 주신 내용 잘 반영해 보도할 예정입니다</p>

	<p>보드 이용시 면허가 필요한지와 도로에서의 전동 킥보드의 운전에서 별도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의 상황에 대하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임에도 이러한 중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심각한 범죄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교육, 안전 장비의 의무화, 그리고 일정 장소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을 규제하는 논의는 다시금 필요해 보였습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08. 0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6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해외에서 대북 첩보 업무를 하는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밀 정보원들의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비밀 요원까지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30일, 국군 정보사령부 해외 공작 부서 소속 군무원 A 씨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군사 기밀 가운데 대북 작전 코드명을 비롯한 블랙 요원들의 실명과 위장 직업, 위장 업체명 등 기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군 검찰이 군사기밀 누설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 영

장을 청구한지 하루만에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군사 기밀 다량이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군 법원이 신속하게 조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정보사는 지난 6월쯤 유관기관의 통보로 이번 사건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며, 북한으로 기밀 정보가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 군이 위해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시키고, 출장을 금지시키는 한편, 시스템 문제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정부가 구축해 온 대북 정보망 및 군사 정보망을 와해시킨 심각한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에 훼손된 정보망을 복구하는데는 최소 2,30여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분석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이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먼저 보도에 따르면 군이 이번 기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지난 6월로 알려졌는데, 최초 인지 시점부터 두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자에게 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를 살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은 우리 요원들의 생명이 걸린 만큼 촌각을 다투는 조치가 필수적이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수사가 지연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 화면 구성에서도 개선될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핵심 부대는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등장하는 군 관련 화면은 국방부 중앙군사법원,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정보사령부가 사안의 핵심 부대인 만큼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되었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 모여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연합훈련 실시 등의 공동대응을 처음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으로, 향후 한일간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9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3국 장관이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3국 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각서의 발효를 선포했다고 전하며, 이번 각서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이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와 별개로 한일·한미 국방장관 간 양자 회담이 각각 열렸고, 한일 회담에서 양측은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며 고위급 상호

방문과 부대 간 교류, 한일 수색구조훈련 등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회담에서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3국의 국방장관 회담은 향후 우리나라의 군사, 외교, 안보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연합뉴스TV가 발빠르게 회담 결과를 전하며 주요 내용을 짚어 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회담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 결과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용어가 비군사전문가인 시청자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에서 보완 설명이 필요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지난 2023년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이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한 바 있는데 해당 내용이 이번 사안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전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과의 외교적, 군사적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평가해보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체결된 협력 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각국의 이익에 따라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보도에서는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다루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어린 딸 김주애가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하며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추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 안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는 국가정보원이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주애에 대한 호칭이나 군사·경제분야 활동에 등장하는 것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후계자 구도가 굳어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김주애에게는 오빠가 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을 지도자로 내세운 적은 아직까지 없다며, 김주애가 후계자의 길을 밟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첫째 아들, 둘째 딸 김주애, 그리고 성별이 불명확한 셋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박 의원의 발언을 함께 전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정보는 극히 제한된

출처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데, 그 이유는 북한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씨 일가와 관련된 정보일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정보에 있어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리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김주애 후계자설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만큼, 국정원의 발표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08. 11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6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놀이 준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용복, 튜브 등 어린이 물놀이에 필수인 준비물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알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 25개를 검사했는데,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튜브에서는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90배 이상 나왔고,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에서도 비슷한 물질이 기준치 대비 25배 이상, 지퍼 부분에서는 납 함량이 기준치보다 6배 많이 나왔습니다. 아쿠아 슈즈에서도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2배가량 검출되었고,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팀장은 물품 선정 시, 가격 뿐 아니라 각종 검사 기관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상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더위 및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물놀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시청자들이 물놀이 제품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어린이용 제품에서 확인된 문제로, 더욱 신중한 구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보 전달 및 주의사항 전달에 있어서는, 시청자들의 이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문가 인터뷰에서 각종 검사 기관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는데요, 어떤 검사 기관에서 확인하였는지, 혹은 검사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덧붙여졌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및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매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층 고용 문제에 관해 보도한 <토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5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고령층 고용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계속고용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 노동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퇴직 연령을 늦춰 소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이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년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타협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령층 고용은 결국 노후소득과 엮인 문제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연계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회문제를 다룬 보도였는데요. 중요성 대비 보도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아 아쉬웠습니다. 보도 초반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나, 조사명 등 명확한 출처가 제공되지 않았습니. 보도 중반쯤 언급된 계속고용위원회 관련해서는, 노사 간 엇갈린 의견만 짧게 언급되었는데요.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상반된 두 의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제목과 달리 해법을 다루기보다는 화두를 던진 것에만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터뷰도 짧게 인용되었는데요, 중요한 사회문제인 만큼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제로 음료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제로 음료는 설탕이나 액상 과당 대신 아스파탐 등 인공 감미료를 첨가해 만듭니다. 당 섭취를 줄이면서도 달콤함을 즐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탄산음료보다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용 음료'라는 인식까지 확산하면서 인기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4개의 제로 음료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제로 음료의 열량은 일반 탄산음료의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2% 수준이었습니다. 또, 제로 음료의 설탕 대체 감미료 함량은 일일 섭취 허용량의 3~13%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제로 음료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자주 마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제로 음료를 과량 섭취하면 대체당이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라형 제로 음료의 경우 카페인도 들어있는데, 체중이 30kg 정도인 어린이가 제로 콜라를 하루에 2캔 이상 마시면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을 수 있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본 보도는 제로 음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정보 출처가 명확히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 대비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과 대체제도 설명되었습니다. 사실상 본 보도는 제로 음료가 '제로'라는 이름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음용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는데, 해당 의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다이어트 음료'라고 인식하는지 일반 음료와 비교해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체중 감량 목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 역시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는 보도인데요. 여성 폐암과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먼저 실제 폐암 선고를 받은 환자에 대해 전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암 검진도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왔으며, 비흡연자인 40대가 생존율 20% 수준의 폐암 4기를 진단받은 것입니다. 해당 환자는 비흡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재작년 기준 암 종류별 사망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이중 여성 폐암 환자의 90% 가까이가 비흡연자입니다. 문제는 2019년 7월부터 흡연자 등 폐암 고위험군은 국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비흡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치료 적기를 놓치는 비흡연자 폐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기 내과 교수는 흡연력이 적거나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은 폐암 가족력이 있는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을 진행해, 1기에진단되는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본 보도는 일반적으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병 가능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보도 초반에는 실제 환자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국가 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주변 국가의 사례를 전달하여, 사실상 해당 문제점의 해결책 중 하나를 제시한 셈이었는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한 마약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친목을 위해 결성된 동아리지만, 총책임 회장 A씨가 마약을 주변에 권유하면서부터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동원해 마약을 사들이고, 고문 변호사를 두기도 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빌려 '마약 아지트'로 삼았습니다.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범행이 들통나자 머리카락을 탈색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해당 이슈가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명문대생 중심의 동아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이라 더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본 보도에서도 해당 부분이 다소 강조되었는데요, 이는 해당 동아리가 모집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필요했던 내용이라고 생각되나, 더 이상 강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마약 유통에 사용된 SNS와 비용 등이 공개되었는데,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범죄 영화 같다'는 수식어를 사용했는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해당 마약 사건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자극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자료화면이나 마약 복용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 등 해당 부분

에 있어서는 신증을 기울인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08. 18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6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온라인에 여행지를 검색하면 여행지에 대한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플랫폼에서는 교통편과 숙박을 비롯해 주요 명소의 입장권 등의 예약과 가격 비교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라이브 투데이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트립닷컴의 불만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가운데 아고다와 트립닷컴 사건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아고다 상담은 610건, 트립닷컴은 327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 222건, 테무 92건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고, 아고다 등 여행 플랫폼 이용자들은 주로 예약 취소와 환불, 수수료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과 그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여행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만 의존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이나 플랫폼 측의 대응 방안과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등을 보도에 포함했다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단순히 중국 쇼핑 플랫폼과 여행 플랫폼 불만 상담 건수를 비교했는데, 국가별 소비자 상담 건수를 덧붙여 수치를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면 국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다 깊이있는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올여름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에 대한 내용을 다룬 보도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염병마저 확산되고 있어 개인 방역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더운 날씨에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다 보니 실내 환기가 부족해 호흡기 감염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뉴스센터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령대별로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 소개했는데, 영유아 사이에서는 수족구병이 최근 10년 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소아·청소년층에서는 지난 6월부터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말라리아의 확산을 언급하며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모기에

물린 뒤 오한이나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에 대한 보도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12일 뉴스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전보다 9배 넘게 증가한 861명이며 이 가운데 고령층의 입원이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에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는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고, 질병관리본부는 2시간 마다 10분씩 실내 환기를 하고 손씻기를 하는 등 기본 예방 수칙 준수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의 현재 상황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발생하는 계절성 질환에 대해서는 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등 오랜 기간 지속된 감염병에 대해서는 확산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이 전 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보도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수칙을 전문가의 의견과 질병관리청의 권고를 통해 언급했는데요, 국가 차원의 감염병에 대한 강제적 방역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잘 알려진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실내 환기 부족을 지적해 시청자들에게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기 방법 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전달했다면 보도의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 결제와 금융서비스는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이용자 개인의 금융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관과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월에서 7월 사이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분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 정보에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 제공은 정상적인 위수탁이라고 해명했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부정 결제 여부 확인 외에는 활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위수탁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현장감사에 대한 내용과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애플의 3자 협력 관계도를 시각화해 전달했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화면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카카오페이 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함께 덧붙여졌다면 시청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국경일에는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는데, 최근에는 아파트와 빌라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는 광복절에 태극기 물결은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태극기를 걸고 싶지만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지 않은 빌라가 대부분이고 아파트에서도 태극기를 거는 가정이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국경일에 태극기 구경이 어렵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심도 줄고 판매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국기 꽃이가 없는 경우 창문에 직접 붙이는 방법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과 집과 차량의 국기 게양법에 대한 안내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 국경일이면 태극기를 게양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축 건물들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진 것입니다. 이 보도는 태극기 게양감소 현상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국경일과 국기 게양에 대한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태극기 게양의 의미를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상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 게양 감소 현상을 거주 환경의 측면에서만 설명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통해 다뤄봤다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태극기 게양 장려를 위한 제안이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관련 현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08. 2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65회 - '연합뉴스TV

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18일 뉴스오늘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어머니를 따라 본국에 돌아간 후 국적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뉴스리뷰에서는 지난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전했으며, 뉴스현장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대규모 재유행하고 있으며 이의 격리 기준 등 수칙을 기자가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8일 일요와이드인데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두고 아파트 주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는 갑자기 주차돼 있던 전기차 차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폭발과 함께 치솟은 불길은 손쓸 새도 없이 주변으로 옮겨붙는 상황이었는데요, 인천 전기차 화재에 놀란 건 정전과 단수 피해까지 본 해당 아파트 주민뿐만은 아니며, 전기차 차주와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600여 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전기적 요인인데요, 통상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차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특성 탓에 전기차 화재 장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장소로 꼽히는데, 그런데 이번 화재가 부른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는 새로운 님비 현상을 낳으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예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과 전기차 차주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만 따지고 보면 초기 진압이 수월한 지상 주차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전기차 60만 대를 한꺼번에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요즘 같은 폭염에는 지상 주차가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소방 안전 규제 강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는데요, 스프링클러만 잘 설치돼도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에 소방 안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스프링클러 헤드라든지, 소화기, 또 옥내소화전, 소화 질식포 이런 다양한 소방 시설들이 설치가 돼서 안전성 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는데, 최근 인천 화재를 계기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부랴부랴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내 무사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전기차 화재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위의 방송은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화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

상은 고온에서 화재가 지속되는 이유로 지적되는데요, '열폭주' 현상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그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기술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소방규제와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논의에 대한 설명도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현재의 소방 설비가 어느 정도나 취약한지,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뉴스오늘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에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1만명 넘게 태어나고 있다면서, 이 중에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본국에 돌아간 아이들이 국적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따로 살게 되면서 지금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연 초청 캠프인데요, 한국에서 미용사를 꿈꾼다는 김 모군도 참여했다면서, 다문화 가족 자녀인 김모군은 아빠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은 언제나 자기 고향이고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 공부하거나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중국적인 김 군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군대도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김 군처럼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현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만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도 자유롭지 않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는다면 베트남의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문 조사 결과,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 5명 중 1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훈 사단법인 '코피온' 사무국장은 베트남어 시험을 쳐야되기 때문에 학교 입학을 못하거나 아니면 진학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들을 재외국민으로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부는 5년 전부터 베트남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과 법률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간 귀환 여성과 한국 국적 자녀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위 보도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국적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을 나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간 한국 국적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나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입학이 자유롭지 않아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는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환 여성과 한국 국적 자녀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지난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고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16일 뉴스리뷰에서는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인 60대 부부의 뒤를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해 학생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처벌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자전거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다는 법상 도로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중범죄인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된 만큼 가장 처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건이라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없다면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라고 전하며,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60대 부부의 비극적 사고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고의 심각성과 법적 쟁점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단독으로 보도한 점은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다만 위 보도 외 전동 킥보드 이용시 어떤 위험한 점이 있는지와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한 번 더 짚어도 좋을 것입니다. 킥보드 사용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시 면허가 필요한지와 도로에서의 전동 킥보드의 운전에서 별도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의 상황에 대하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합의가 없다면 실행을 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임에도 이러한 중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심각한 범죄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교육, 안전 장비의 의무화, 그리고 일정 장소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을 규제하는 논의는 다시금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 뉴스현장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대규모 재유행은 엔데믹 단계로 들어선 이후 처음인데요,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보니 격리 기준 등 혼란도 크다면서, 헛갈리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기자가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지난 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천 명을 넘기며 한 달 만에 500%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겨울기간 중에 고위험군에서의 백신 접종률이 워낙 낮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유행이 8월 셋째주에서 넷째주쯤 정점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KP3

변이의 치명률이나 증증화율은 높지 않지만, 보건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사라졌지만,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인과가 물리는 실내 행사엔 참여를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원래 5일이었던 격리 의무는 증상이 나아진 뒤 24시간까지 격리 권고로 바뀌었으며, 보건당국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회사엔 병가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고위험군 가운데 유증상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다만 치료제의 무상공급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추가로 확보한 치료제 공급을 지난 주부터 시작했다는데요, 10월 중에 인플루엔자와 백신 동시접종이 가능하도록 관련 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하여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는데요, 방송에서 주요 방역 수칙과 현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KP3 변이의 전파력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기존 백신이 KP3 변이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 등에 대해선 좀 더 보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하더라도 건강에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더 유리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4년 8월 4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박세진 시청자평가원 방송사 EBCA 홍보팀(미디어)책임 고수</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8월 11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이항애디 캐시(캐시)인턴 미디어연구소 연구원</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8월 18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세대학교 기초교육원</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8월 25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홍태 시청자평가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우)</p>